

# 벼랑 끝에 선 포항 철강산업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정부·포항시·시의회·국회는 구조조정·공장폐쇄 방관 말고  
지금 당장 지역 위기 해소를 위한 입장과 대책을 내놓고, 책임을 다하라

포항은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출발점이자, 반세기 넘게 국가 기간산업과 함께 성장해온 도시다.

철강산업은 포항의 산업과 고용, 지역경제를 견인해온 핵심 기반이었고, 대한민국 자동차·조선·건설 산업의 성장에 필수적인 자재를 공급하며 국가 경제 발전의 거름이 되어왔다. 그러나 지금 포항은 구조조정과 공장 폐쇄, 고용 축소, 인구 유출이라는 복합 위기 속에 처해 있으며, 지역의 존립 자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2024년 기준, 포항철강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342곳 중 39곳이 가동을 멈췄고, 32곳은 휴·폐업 상태에 놓여 있다. 2014년 대비 고용 인원은 2,650명(약 16.4%) 이상 줄었으며, 생산과 수출 실적도 각각 9% 이상 감소했다. 산업 기반의 급격한 위축은 고용 불안과 지역경제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코스틸, 동일산업 등 주요 철강기업들은 설비 폐쇄와 인력 감축, 생산 축소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현대제철은 2025년 3월, 희망퇴직과 전배·전직을 통해 237명을 구조조정한 데 이어, 노사합의로 도입된 '2조 2교대' 체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포항2공장 무기한 휴업과 포항1공장 중기사업부의 매각까지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많은 기업들은 정규직 채용을 중단한 채, 촉탁직·계약직·외국인 노동자 등을 중심으로 계약 해지, 재계약 거부, 직무 전환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해고에 가까운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저임금이고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들을 우선적으로 희생시키는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한 조치이며, 사회적 반발을 피하기 위한 '조용한 해고', 곧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선택한 비열한 꼼수이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단순한 경영상 판단을 넘어, 지역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철강산업 기반이 무너진 포항에서 일자리를 잃은 시민들은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고, 이는 인구 감소로 직결되고 있다. 실제로 포항시 인구는 2020년 51만 3,000명에서 2025년 6월 기준 49만 1,000명으로 줄었다. 최근 5년 사이 2만 명이 넘는 인구가 빠져나갔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포

항지역 소멸은 더 이상 미래의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 포항시, 시의회, 지역 정치권은 이 위기의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구조조정을 방관했고, 철강산업 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지도 못했다. 철강산업의 위기는 단지 특정 기업의 위기가 아니다. 이는 지역경제의 위기이며, 국가 기간산업의 붕괴를 알리는 경고다.

이에 우리 포항지역의 제 정당, 시민사회, 노동단체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포항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철강산업공대위)를 공식 출범했다. 그리고 철강산업의 정의로운 전환과 포항을 지켜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하나. 포항시는 철강기업의 구조조정, 공장 폐쇄, 고용 실태(원하청 포함)를 전면 조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라. 그리고 노동자, 시민이 참여하는 ‘철강산업 위기대응 및 지속가능발전 지역대책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철강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재정립하고, 실질적인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김정재, 이상휘 지역 국회의원은 철강산업 지원법 제정을 위해 앞장서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예산 관련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과 예산 확보를 위한 책임 있는 역할에 나서라.

하나. 철강 대기업들은 포항공장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지속가능한 철강산업 전환과 지역 고용 및 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에게 공식 발표하라.

포항시민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포항시민과 함께해 온 철강산업은 단지 지역의 산업을 넘어 국가 안보를 지탱하는 전략산업이며, 포항 지역 성장의 핵심 기반이었다. 철강산업공대위는 기업의 이윤만을 위한 구조조정, 포항시·정부의 방관, 정치권의 무책임에 맞서 노동자·시민과 함께 정의로운 산업 전환, 고용안정,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단호히 싸워 나갈 것이다. 포항의 생존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싸움에서 철강산업공대위는 끝까지 시민과 함께할 것이다.

2025년 7월 15일

포항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공동대책위원회 일동